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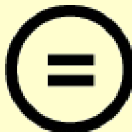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과의 관계



2011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김 은 희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과의 관계

지도교수 황 희 숙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김은희

김은희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8월 26일



주 심 철학박사 이 희 영 (인)

위 원 교육학박사 허 균 (인)

위 원 교육학박사 황 희 숙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연구의 제한점	5
4. 용어의 정리	6
II. 이론적 배경	8
1. 아버지의 양육참여	8
2. 학업적 자기효능감	13
3. 성공지능	20
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에 대한 선행연구	28
III. 연구방법	31
1. 연구대상	31
2. 검사도구	32
3. 자료수집 절차	36
4. 자료 분석	36
IV. 연구 결과 및 해석	38
1. 각 변인의 발달적 경향 분석	38
2.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과의 관계	44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46
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성공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47
V. 논의	49
1.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의 차이	49
2.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과의 관계	52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55
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성공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56
VI. 결론 및 제언	57
1. 결론	57
2. 제언	58
참고문헌	60
부록	70

표 목차

<표 1> Sternberg 등(2000)의 성공지능 이론에 대한 정의	22
<표 2> 연구대상 학생 수	31
<표 3> 아버지의 양육참여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33
<표 4>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34
<표 5> 성공 지능 검사의 구성	35
<표 6>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학년별 ×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38
<표 7>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학년별 × 성별 이원변량분석	39
<표 8>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학년별 ×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40
<표 9> 학년과 성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이원변량분석	41
<표 10> 성공지능의 학년별 ×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42
<표 11> 학년과 성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원변량분석	43
<표 1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공지능의 상관	44
<표 13>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47
<표 14>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아동의 성공지능에 미치는 영향	48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perceived by children, Academic Self-Efficacy and Successful Intelligence.

Eun Hui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ot only father's child rearing and academic self-efficacy, but also successful intelligence. Based of this purpose, the key questions to define are as follows.

1. Are there any differences perceived by children among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academic self-efficacy and successful intelligence, according to grade and gender?
2. How is the relationships among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perceived by children, academic self-efficacy and successful intelligence?
3. How does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perceived by children affect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4. How does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perceived by children affect children's successful intelligence?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350 5th and 6th graders who attend elementary schools in Busan. Choi Gyeong Sun's (1992) index was used as a measurement of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perceived by children. Kim Ah Young and Park Ihn Young's (2002) index was used as a measurement of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to verify validity. Lee Sang Hee's (2009) index , which

was adapted to Sternberg's (1993) intelligence test, was used as a measurement of children's successful intelligence to be appropriate for elementary school's level.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xamining tendencies according to grade and gender, girls more perceived when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is high than boys, and also it indicated that girls' academic self-efficacy and successful intelligence was higher than boys'. Gap according to grade shows that 5th graders had higher academic self-efficacy than 6th graders, but 6th graders had higher successful intelligence than 5th graders.

Second, the higher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perceived by children, the higher academic self-efficacy and successful intelligence.

Third,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perceived by children affect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meaningfully.

Fourth,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perceived by children affect children's successful intelligence meaningfully.

This study shows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is associated with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and successful intelligence. Especially it shows that the higher the rate of father's taking part in spare time and mentoring his children's life, the higher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and successful intellig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is important and the father's role is as important as the mother's role for the emotional and cognitive development of childre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간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며 인성발달을 이루는 중요한 생활환경이다. 특히 아동이 태어나면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부모라는 인적환경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며 친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김태련, 1999).

이처럼 가정환경 내 부모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인간 발달 단계 중 아동기까지의 부모 역할이 강조되어 여러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부모의 역할 중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존재임이 연구·검증되어왔으나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아버지의 역할을 다룬 연구는 비교적 등한시 되어왔다. 이는 사회와 문화의 전형화에 의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김성미, 2000). 하지만 가사노동의 기계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핵가족제도의 확대 등으로 가족형태에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아버지 역할에 대한 변화와 함께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비해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양육참여율은 아직 저조한 편이다. 2007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아버지의 84.5%는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 1시간 미만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과 교육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시 57.7%가 부부 공동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밝혀졌고 아내가 홀로 결정하는 비율은 39.2%로, 남편이 홀로 결정하는 비율인 3.1%보다 약 13배 정도 높았다. 결국 여성이 자녀의 양육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율은 96.9%에 이르러(통계청, 2008) 아이를 돌보는 것, 자녀교육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실제 참여는 미흡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성, 학교생활 적응, 학업성적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으나 자녀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연구는 그 수가 부족하다. 아버지가 아동의 지적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아동의 원만한 관계, 가정에서의 사회적 영향의 정도, 직업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 부자간의 상호교섭의 상태 등은 아동의 지적발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Radin, 1981)고 알려졌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온정적 태도는 아동의 지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특히 자녀와 의논하는 행동이 자녀의 지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희자, 1989). 하지만 최근에는 지능이론에 대한 더 포괄적인 시도로서 다양한 지능이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 성공지능은 전통적 지능의 대안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이 성공지능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은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다.

Sternberg는 성공지능을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는 능력

을 의미한다고 보고 학교의 우등생이 아니라 인생의 우등생을 찾아내는 방법을 성공지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강민수, 문용린, 2004). 그리고 이러한 성공지능은 하위요인인 분석적, 창의적, 실제적 능력의 조화로운 사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성공지능은 지능의 근원을 개인이나 행동, 혹은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중의 일부에서 찾으려 했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달리 개인의 내부 및 외부세계 그리고 경험과 관련시켰으며 전통적인 지능검사가 측정해온 기억력이나 분석적 능력 외에 창의적 능력과 실제적 능력을 포함함으로써 지능 개념의 확장을 시도했다.

이렇게 확장된 개념의 성공지능은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지능의 영역들을 강조한다고 볼 때 가정이라는 환경 하에서 많은 경험을 제공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성공지능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수용적 태도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김미영, 2008)는 연구결과와 성공지능이 전통적 지능보다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를 더 잘 설명한다는 연구(강영심, 송연주, 2002)등에 비추어 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성공지능 모두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성공지능과 관계가 있으리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상관이 있다(양미숙, 2005)는 연구와 자기효능감이 성공지능과 관계가 있다(진현수, 2006; 주건영, 2010)는 선행연구 역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성공지능과 관계가 있으리라는 추정을 하게 한다.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클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여가 활동, 생활지도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았다(양미숙, 2005).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 자율적으로 지각할수록 전반적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옥, 2008).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미래의 상황을 다루는 데 필요한 행동 과정들을 조

직하고 실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며(Bandura, 2004), 과제 수행에 필요한 동기, 인지적 자원,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 등으로 정의된다(김아영, 2007).

Bandura(1977)는 이러한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등이 있는데 이들 4가지 요소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취경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성취경험은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접촉하게 되는 가정에서 갖게 되므로, 가정에서의 경험이 아동들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에 관련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고 특히 학령기를 보내는 아동에게 자기효능감이란 학업적 의미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는 없으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의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차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경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있지만 연구마다 그 결과가 다르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년차이를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성공지능의 경우에도 연구마다 성별에 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변인들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자녀들이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유능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적 시사점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문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년 및 성별에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공지능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넷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성공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첫째, 대상을 부산 시내 초등학교 5·6학년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학령기 아동 전체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측정하였으므로 아동의 응답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4. 용어의 정의

가.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함께 보내는 신체적, 물리적, 상호관계에 대한 참여 행동을 의미하며, 그 하위 개념으로는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의 4개 영역에서의 참여를 의미한다.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상황에서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적 수행 능력에 대하여 보이는 기대나 신념,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지식과 수행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로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된다.

다. 성공지능

성공지능이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은 각자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고 자신의 약점을 수정 보완하는 데 달려있으며 분석적, 창의적, 실제적 능력의 조화로운 사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분석적 능력은 전통적인 지능 검사에 의해 우선적으로 측정되어지는 능력들이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은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아

이디어를 분석하는 것 뿐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새롭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창의적 능력이다. 실제적 능력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자신에 맞게 변화시키며 자신에 맞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 아버지 양육참여의 개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다룬 국내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대개의 경우 Lamb(1981), Bigner(1977), Baruch와 Barnett(1981)등의 연구에서 적용된 아버지 참여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Lamb(1981)은 아버지의 참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물질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 사회전통이나 가치 철학을 전달하는 역할, 가정의 통솔자로 어머니와 협력하여 가정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역할, 자녀의 지적·사회적 능력을 개발하는 역할 등이 그것이다.

Bigner(1977)의 아버지 참여의 개념에는 아동돌보기, 아동과 놀이 및 운동하기, 집안 일·식사에절을 가르치는 등 가정에서의 활동, 사회생활에 대한 직·간접적 접촉을 가르치는 일과 공동생활에서의 아동과의 활동, 그리고 책을 읽어주거나 아동의 신상 문제에 대해 의논하거나 신체적 애정표시 및 훈육하는 역할 등이 포함된다.

Brauch와 Barnett(1981)의 아버지 참여의 개념에는 아동들의 모임(생일·소풍·운동회)이나 병원·유치원·학교에 데리고 가거나 데려오기, 자녀의 선생님을 방문하거나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기, 아동방을 청소하거나

잠자리를 보살펴주기, 아동의 옷이나 필요한 물건 사다주기, 아동과 함께 외출하기, 아동의 건강 보살피기 등이 포함된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 영역에 대한 정의를 국내 논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현숙(1990)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건강관리 및 위생에 관한 역할, 경제적 능력을 갖고 물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역할, 가정의 화목과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역할, 사회전통이나 가치관 생활철학을 담당하는 역할, 자녀의 학습과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역할, 자녀에게 애정 및 관심을 가지는 역할, 기본 훈육에 관한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황정해(199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아버지가 아동양육에 함께 보내는 물리적, 신체적 상호관계에 대한 참여행동의 양적 정도로 정의하고, 하위개념으로 여가활동, 생활지도, 학습지도에의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김혜현(1992)과 성수현(1996)의 연구에서는 최경순(1992)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에의 참여를 포함한다.

연구의 관점에 따라 아버지의 참여에 정의나 해석이 다양하며 그 자료들의 의미를 개괄적으로 파악해 일관성 있는 해석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최경순(1992)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아버지 양육참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란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함께 보내는 물리적, 신체적 상호관계에 대한 참여행동을 의미하며, 그 하위개념으로는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가 포함된다. 여가활동 요인은 자녀와 함께 나들이, 등산, 외식, 영화감상, 유원지나 놀이터에서 함께 참여하여 즐기 등이고, 생활지도 요인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

절, 기본생활 습관형성을 위해 조력하는 행동 등이며, 가사활동 요인은 자녀를 위해 식사준비, 설거지, 집안 청소, 집수리나 정돈에 참여하는 것이고, 학습지도는 자녀의 장난감, 책에 대하여 알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아버지가 관심을 갖기, 준비물 챙기기 등을 포함한다(최경순, 1992).

나. 아버지 양육참여의 중요성

전통사회에서는 자녀 양육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며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이분법적인 개념이 점차 사라지며 어머니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아버지 역시 가사나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이보리, 2009).

특히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시작된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아버지의 역할을 수동적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어머니의 자녀양육시간이 줄어드는 현상과 함께 핵가족 제도의 정착은 유아의 양육을 도와주던 친족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여 결국 자녀양육의 책임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어야 되게 된 것이다(최한순, 1995).

이렇게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 역할 변화에 대해서 Plerk은 아버지의 역할은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도덕적 안내자, 가족부양자, 성 역할 모델, 양육적인 보호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보았다.

Lamb(1986)은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이 촉진되며, 감정이입능력이 발달하고, 성 정형화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 아버지의 능동적인 양육참여는 자녀의 도덕성과도 연관된다는 보고도 있다(정현희, 최경순, 1992). 즉 아버지

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이고 애정적일 때 자녀가 보다 내면화된 이타심과 관대함을 가지게 된다. 이뿐 아니라 Becker(1964)는 온정과 허용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임했을 때 자녀는 더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으며, 적의를 나타내지 않는 건전한 성인이 되어 성인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긍정적 사회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이지혜, 김정옥, 2009).

Parson은 아버지는 가족체계 내에서 사회적 대표자로, 사회체계 내에서 가족의 대표자로서 모범이 되는 행동과 가치관을 선보이는 도구적 역할(Instrument role)을 담당하고, 어머니는 애정 및 감정 문제를 담당하는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즉 아버지는 경제적 제공자이며 최종적 판단을 결정하는 사람 또는 궁극적인 훈육의 책임자로서 자녀들로 하여금 장래계획을 설계하도록 하며 자녀가 능력 있고 독립된 성인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아버지는 이들의 남성역할의 모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어머니는 가정의 소비생활과 가사 일을 담당하고 인간관계의 융합을 도모하며 가족 간의 협조와 이해를 위한 애정적·정서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김은정, 2001).

Erikson 과 Duston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기본적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다. 즉, Erikson은 8단계 중 신뢰감과 불신감이 형성되는 제 1단계와 자신의 관심이 주위 사람들에게로 확산되어져 나가는 제 3단계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김정옥, 1990).

아동의 지적 발달에 있어서는 Blanchard와 Biller(1971)는 아버지와 상호작용을 많이 한 남아들이 아버지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지 못한 아동보다 학교성적이 더 우수하였다고 하였다(김정옥, 1990). 또한 Brusser(1984), Cross Hurley 등은 자녀들에게 명령함이 없이 그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

고 관심을 가져주는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아버지들의 자녀가 더 명철하고 융통성과 상상력도 풍부하였다(이현숙, 1991).

Deutch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로 하여금 어머니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Lamb은 자녀에게 아버지가 놀이를 통하여 문화적인 성유형 행동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Dikerscheid는 아버지와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아버지가 사회적 놀이에서 어머니보다 더 많이 상호작용한다고 보고 하였다(1990, 전효숙).

자녀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Radin(1973)은 아버지와 아들관계의 질과 양적 측면은 남아의 지적 능력에 영향을 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지능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Stevens와 Mathew(1978)의 연구에서도 자녀들에게 명령함 없이 그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아버지들의 자녀가 더 명철하고 창조적이며 융통성과 상상력도 풍부하였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아버지는 자녀의 교육적, 직업적, 경제적인 포부와 열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가 온정적일 경우 아들의 성취동기를 촉진시키며, 학업성취에 이어서 아버지의 적절한 개입이 자녀의 높은 성취동기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문교부, 1983).

Dunn(1993) 또한 아버지의 직접적인 양육참여는 어머니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정서, 사회성 발달을 촉진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어머니보다 적지만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와 비슷하며, 오히려 자녀의 요구에 대해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다.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아버지가 부재인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이뤄졌는데, Clark-Stewart(1977)는 아동의 성역할, 학문적 성취, 도덕적 발달과 아버지 역할간의 관련된 연구에서 남아의 경우 아버지 부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으며, Hoffman(1971)도 아버지 없이 성장한 아동은 가책이나 내적 도덕적 비판, 비난의 수용, 도덕적 가치 등의 점수가 낮았고, 공격성 표출에서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 부재의 남아가 아버지가 있는 남아보다 남성다운 것을 배우는 데 지장이 있으며,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더 복잡적이고 덜 공격적이었으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존적 성향을 보인 반면 자신의 여성적 성향을 감추기 위해서 과격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Fisher & Fisher, 1976).

따라서,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직접 참여하여 상호작용 함으로써 어머니와 다른 역할로 아동의 모든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는 각기 다른 종류의 자극은 부모의 어느 한쪽에서만 받는 일방적 자극에 비해 아버지가 함께 놀아주려는 노력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 즉 또래와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할 경우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

가. 자기효능감의 개념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실현하고, 반면에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를 대처할 수 있다. 만일 자기의 행동에 의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행동의 주된 근원이 되며 인간의 삶은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의해 유도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전적 정의에서의 자기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으로 Bandura(1977)가 사회인지이론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사회인지이론에서 개인의 지각과 행위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핵심적인 동기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제안했으며 개인의 자신에 대한 신념은 능력뿐만 아니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념에 따라 수행 결과가 다르게 유발될 수 있다.

Bandura(1977)는 사회인지이론에서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즉 구체적인 자신감이라고 정의하고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사람들은 성공적인 행위를 이루며, 반면에 낮은 효능감은 실패하거나 지연 또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Schunk(1995)에 의하면 특정한 과제에서 개인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능력은 그 과제에 대한 자아효능감에 의해 결정되며, 학습자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개인적 판단, 신념에 따라 활동의 선택, 자기화, 노력 및 지속성 등이 변할 수 있다(정정애, 2008에서 재인용)고 한다. 국내 학자 중 김은진(2004)은 주로 개인의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판단, 신념, 기대 또는 자신감이라고 자기효능감을 정의하였고, 한승미(2005)는 현재의 행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후속행동을 수행하는 데에 보다 높은 기준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학자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념에는 개인의 ‘상황’, ‘행동’ 그리고 ‘신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자기효능감은 애매하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특별한 행동을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듯 자기효능감은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의적 특성으로 개인의 성취동기, 사회적 적응 행동, 자아실현, 목표 설정과 수행 정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개념

학업적 효능감은 Bandura(1986)의 사회학습이론의 자기효능감 개념으로부터 발전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Bandura, 1977, 1986), 학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인지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믿음(Schunk, 1989)을 말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Bandura & Schunk, 1981),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Schunk, 1983),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한다(Bandura & Schunk, 1981; Schunk, 1982).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뛰어난 자기조절 능력을 보인다(Zimmerman, Bandura, & Martinez - Pons, 1992; Zimmerman

&Martinez-Pons, 1990).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동기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과제선택, 과제에 투자하는 노력의 양과 질,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매달리는 정도, 효과적인 학습전략의 수행 여부 등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위한 다양한 측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를 관찰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자신의 과제수행 능력에 대한 신념인 자신감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제를 지속하고 자신의 반응을 , 관찰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 평가하는 능력인 자기조절능력을 받침으로, 달성하기 쉬운 과제보다는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여 수행해 낼 때 더 나은 결과를 표출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리경, 2010).

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인

(1) 자신감

일반적으로 자신감이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으로서의 자신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는 축소된 의미를 적용한다(Sherer et al., 1982). Bandura(1986)는 자신감을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는 상황-특수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지만, 이를 전반적인 학업적 상황에 적용시켜 보면 자신의 전반적인 학문적 수행 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확신 또는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판단 과정을 통해 성립되고, 정서 반응으로 표출된다(Bandura, 1986, 1993)

(2) 자기조절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이란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Bandura, 1986). 여기서 자기관찰(self-observation)은 자기 행동의 여러 측면에 대한 의도적 주의집중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의 , 진전정도를 평가하는 자기조절 기능을 하며, 행동의 변화를 유도한다. 자기판단(self-judgement)은 자신의 목표와 현재의 수행을 비교하는 것으로 판단에 적용되는 기준, 목표특성, 목표달성의 중요성, 수행에 대한 귀인에 따라 수행의 긍정성, 부정성 여부가 결정된다. 자기반응(self-reaction)은 목표과정의 만족여부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고, 향상 및 개선을 위해 스스로 동기화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Bandura, 1986; Schunk, 1990; Zimmerman, 1989). 이러한 자기조절효능감은 자기관찰, 자기판단과 같은 인지적 과정과 자기반응과 같은 동기적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김아영과 박인영, 2001).

(3) 과제난이도선호

목표와 관련된 과제 난이도에 대한 선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과제난이도선호이다(김아영과 김미진, 2004).

Schunk(1990)는 누구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의 수행은 학습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쉬운 과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과제난이도선호는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된다.

라. 학업적 자기효능감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인간은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 발달하기 때문에 개인이 처한 환경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andura (1997)는 자기효능감의 형성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크게 학교환경과 가정환경, 사회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가정환경은 학생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이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은 자신이 속한 가족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부모와 자녀의 문화생활 공유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한 정서적·정보적 지원은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우희정·이숙, 1994).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자기효능감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규식(2005)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각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이순자(2003)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정(2003)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연구에서 온정/수용적 양육태도를 많이 지각한 집단이 적게 지각한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고, 거부/제재적, 허용/방임적 양육태도를 많이 지각한 집단이 적게 지각한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황혜자와 최윤희(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개방·자율로 지각하고 또한 거부보다는 애정으로 지각하고 있는 아동들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김민정(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적이고, 친애적일수록 아동은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정갑순(2002)은 초등학생(6학년)이 중학생(3학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관계와 자기효능감의 중단분석연구를 실시하여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지원, 성취 압력 및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부모의 무관심, 적대, 거부적인 양육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기효능감의 신념이 부모와의 변인에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지며,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 등을 통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즉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나타나는 연구결과를 통해 촉진적 의사소통 또한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부모의 양육관련요인이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부모의 양육관련요인과 아동의 학업적 상황과 관련하여 학업수행 및 성취수준에 영향을 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계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검증받은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척도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한다.

3. 성공지능

가. 성공지능 이론

성공의 사전적 정의는 ① 뜻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② 목적을 이루는 것 ③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성공은 단지 부와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 즉 출세의 뜻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성공의 의미는 작게는 과제를 완수하거나 기말고사나 수능시험 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부터 크게는 또래친구들과 주변사람들과의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문용린·강민수, 2004).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광범위한 지적기능을 획득, 개발하고 적용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결코 IQ나 학업성적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닌, 분석적인 동시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산하며 과제를 해결하는 실천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제를 해결할 때 융통성 있고 현실성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원지효, 2006). 이와 같이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격과 능력 등 여러 가지 특성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ternberg(1996)는 이러한 다양한 인간의 능력을 IQ 점수로는 설명하기 부족하고, 미래는 더욱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공적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설명력이 필요하다고 하여 새로운 지능개념을 만들어 냈는데 그것이 성공지능이다. 성공지능 이론은 학교에서의 학습능력과 관련된 전통적 지능개념인 IQ에서 무시되었던 다른 지능영역인 창의적 영역과 실천적 영역까지를 지능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완성한 이론으로 개인의 삶의 기준,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성공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다루는 이론이다.

Sternberg(1996)는 성공지능이란 책에서 삼원지능이론을 발전시켜 “성공 지능(successful intelligence)”이란 용어를 처음 소개하였다. 삼원지능은 지능의 세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Sternberg는 이 세 부분을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삼원지능이론이라는 하나의 완전한 지능이론을 시도하고 있다(성미향, 2006). 이것은 학교에서의 학습능력과 관련된 전통적인 일반지능의 개념을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의 성공에 필요한 지능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Sternberg(1996)는 공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 하고 자신의 단점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본다. 강점의 극 대화와 단점의 보완은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선택하는 데 분석적, 창의적, 실천적 능력이 균형을 이루고 이러한 능력들의 조화로운 사 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실세계에서의 성공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석지능, 창의지능, 실제지능의 세 측면으로 구성된 지능이 성공 지능이다.

Sternberg(2003)에 따르면, 이 세 능력은 모두 메타요소, 수행요소, 지식-습득 요소의 3가지 정보처리 요소들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메타요소는 집행 과정으로서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정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자 원을 분배하고,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정신적으로 표상하는 등의 과정이다. 수행요소는 메타요소의 지시에 따라 실행하는 과정으로서 관계의 추론, 고 차 관계의 도상화, 관계의 적용과 같은 과정이다. 지식-습득 요소는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선택적 부호화, 선택적 비교, 선택적 결합과정을 포함하며 메타요소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요소들이 비교적 추상적이고 학업적인 과제에 적용될 때 분석(학업) 능력을 나타내고, 비 교적 새로운 과제나 장면에 적용될 때 창의 능력을 나타내며, 환경의 적응, 조성, 선택을 요구하는 일상생활이 문제에 적용될 때 일상 능력을 나타낸

다.

위의 내용을 포함한 성공지능 이론의 구조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Gottfredson(2003)이 Sternberg 등(2000)의 학업지능과 실제지능의 정의를 도표화하여 재인용한 것을 하대현(2004)이 번역한 것이다.

<표 1> Sternberg 등(2000)의 성공지능 이론에 대한 정의

	분석능력	창의능력	실제능력
능력의 기능	문제 해결하기 맥락으로부터 학습 및 추리 비판적 사고하기,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문제 풀기, 결정하기	풀어야 할 문제를 결정하기 신기성 대처하기 새롭고 흥미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주어진 것을 뛰어넘기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실-세계, 일상의 문제 풀기 아이디어 실행하기, 지능이 실-세계 맥락에 적용되어질 때 사용되는 능력
“반영된”하위 이론	요소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요소	경험 다양한 경험 수준을 가진 과제들에 적용되는 정보처리 요소	상황 환경에 적응, 환경을 조성, 선택하기 위해 경험에 적용되는 정보처리 요소
개인과 외부 환경과의 관계	내적 세계	경험	외적 세계
STAT 하위검사	분석 언어, 수량, 도형, 에세이	창의 언어, 수량, 도형, 에세이	실제 언어, 수량, 도형, 에세이

이러한 삼원지능의 세 가지 하위 요소가 상호 보완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능이 바로 성공지능이며, 삼원지능이 더욱 발전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삼원지능이 구성요소인 세 가지 능력을 강조하는데 반해 성공지능은

실생활에서의 성공을 강조하고 이 세 능력을 조화를 요구하며,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합된 일련의 능력이다.

나. 성공지능의 구성 요인

(1) 분석지능(Analytic Intelligence)

분석지능이란 문제의 해결안을 찾아내기 위해 사고 과정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능의 요소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며 혹은 비교하고 대조할 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 내부 세계와 관련된 능력이며, 지능의 본질을 지적 행동에 기저 되어 있는 정신과정과 관련시켜 이해하려는 요소 하위이론을 근거로 제안된 능력이다. 또한 이 지능은 전형적으로 비교적 익숙한 종류의 문제에 적용될 때를 포함한다(송연주, 2002).

이러한 분석지능은 종래의 지능검사가 측정해 온 일반요인(g)과 크게 관련되는 것으로 IQ 개념과 가장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지영, 2005) 하지만 분석적 지능은 학업 적성만을 측정하는 기존의 IQ 개념과는 달리 지능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변화된다는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유성은, 2011).

분석지능은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기존의 지능 검사에 의해 측정되는 분석지능 그 자체만으로는 학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의 성공 또한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분석지능은 성공지능의 첫 번째 열쇠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열쇠는 아니라고 본다(이상희, 2008).

(2) 창의지능(Creative intelligence)

창의지능이란 주어진 것을 뛰어넘어 새롭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분석지능, 실제지능과 서로 독립적으로 기능한다. 이 지능은 개인의 외부와 내부 세계를 연결 짓는 것으로 경험 하위 이론을 근거로 제안된 지능이다.

또한 창의지능은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 자신의 내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창안하고 발명하며 설계하는 능력으로, 구체적인 활용내용을 살펴보면 시, 조각상, 새로운 게임을 창조해내는 활동과 새로운 학급회 조직, 과학적 실험계획, 집 설계하기 등과, 다른 나라에서의 삶은 어떠할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일지, 곤충들이 어떻게 의사소통할까와 같은 것에 대해 상상하는 활동, 그리고 어떠한 상태를 가정해보는 활동까지를 창의지능의 활용 범주로 설정한다(Sternberg & Grigorenko, 2002).

(3) 실제지능(Practical intelligence)

Sternberg(1985, 1988, 1995)는 일상의 삶에서 현실 생활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며 해결하는 능력, 묵시적 지식을 가지고 산업장면에서 타인의 행동 의도와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고 타인의 기분, 기질, 동기나 욕구 등을 잘 구별해서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을 실제지능이라고 정의하였다.

‘생활지능’ 또는 ‘상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실제지능은 분석적 능력만을 강조하는 학문적 지능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성공적인 일상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다. 즉, 실제지능이란 일상에 적응하고 실생활의 문제해결과 목표 달성을 위해 그 상황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지능에 비해 역동적이고 영역 중심적인 능력이다.

실제지능은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선택하면서 일상의 생활에 적용되는 지능으로 문학작품속의 등장인물로부터 배운 교훈을 일상에서, 수학적 지식을 슈퍼마켓에서, 운동경기에서 배운 규칙을 일상에 적용하는 활동을 할 때 활용되는 측면을 실제지능의 활용적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역사적인 교훈을 현재에, 그리고 과학적 원리를 일상생활에 응용하는 것처럼 ‘응용하기’와 그 밖의 ‘맥락화하기’와 같은 활동을 할 때 활용된다(정제동, 2008).

다. 성공지능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외국에서 수행된 성공지능과 관련한 선행연구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성공지능 이론 연구들을 분류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지능 검사를 제작하고, 학업성취와 관련해 그 이론의 타당성을 밝히는 연구가 있다. 나동진 등(2003)의 연구, 강영심과 송연주(2002)의 연구, 문용린과 강민수(2004)의 연구가 이 유형에 속한다.

강영심과 송연주(2002)는 Sternberg(1993)가 제작한 검사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성공지능이 전통적 지능보다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를 더 잘 예측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성공지능이 전통적 지능보다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를 더 잘 설명하였으며, 세 지능의 학업성취에 대한 설명량은 20%로 세 지능 중 실천지능의 설명량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나동진 등(2003)은 박도순, 하대현과 성태제(2000)가 개발한 신종합지능 검사를 사용하여 과학영재의 삼원지능, 사고양식,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삼원지능 중 학업성취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실천지능으로써 과학영재의 학업성취를 51% 설명했다.

문용린과 강민수(2004)는 성공지능 검사에 대한 경험적 타당화 연구에서 세 지능의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총점에 대한 설명력은 33%이며 세 지능 중 분석지능이 가장 설명력이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또한 나동진, 이정규와 김진철(2006)은 세 지능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상대적 예측력 연구에서 분석지능이 학업성취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정지영(2005)은 성공지능 검사에서의 능력에 대한 성차 연구에서 신종합지능검사를 이용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능력에 대한 성차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창의지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분석지능과 실제지능은 여학생이 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곽윤미(2006)는 성공지능과 초등학생 학업성취도의 관계 연구에서 문용린과 강민수(2004)가 제작한 성공지능 검사지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분석지능이 학업성취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원지효(2006)는 초등학생의 성공지능과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에서 문용린과 강민수(2004)의 성공지능 검사지를 사용하여 분석지능과 실천지능이 학업성취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들의 공통점은 전통지능보다 성공지능이 학업성취를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 지능의 학업성취에 대한 설명력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공지능 이론의 두 번째 연구 유형은 성공지능 이론에 근거한 수업효과 연구이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현재까지 전윤식(2002)의 연구가 유일한데 그는 성공지능 이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삼원지능 이론에 대한 교수모형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수업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수업에 비해 삼원지능 모형에 입각한 수업이 학업성취, IQ, 창의성, 실제지능 모두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현재 Gardner나

Sternberg의 지능 이론과 지능 훈련프로그램은 외국의 교육개혁 운동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능 연구는 앞으로 지능의 ‘교육적’ 측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성공지능 이론의 발달, 논쟁, 교육적 활용에 대한 개관 논문들이다. 이러한 논문들 중에서 하대현(2004)은 Sternberg의 이론 발달 과정을 요소이론, 삼원지능이론, 성공지능 이론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이론이 진화되는 과정과 시기별 의의를 찾아보았고, 성공지능 이론의 타당성과 관련된 논쟁을 소개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신종호와 권희경(2004)은 성공지능 이론의 학교 현장 적용에 대한 교육 원리와 교육 프로그램의 예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성공지능 교육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장점을 계발하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프로그램의 설계에 있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김윤숙(2004)은 성공지능의 이론적 탐색이라는 연구에서 성공지능 향상 전략과 교육적 시사점을 보고하였다. 그는 문헌연구 방법으로 Sternberg와 Grigorenko(2000)의 『성공지능 가르치기(Teaching for Successful Intelligence)』를 기초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권옥(2005)은 성공지능과 학습습관 및 학습동기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분석지능과 실천지능이 불안대처, 주의집중전략과 유의한 상관을 보임을 밝혔다.

이상희(2008)는 초등학생의 성공지능과 자기조절력 및 학습태도와의 관계를 밝혔는데 그 결과, 초등학생의 성공지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하게 높아지며 자기조절력과 학습태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성공지능과 자기조절력, 학습태도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밝혔으며 자기조절력보다 학습태도가 초등학생의 성공지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에 대한 선행연구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효능감의 형성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양미숙의 연구(2005)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초등학생 아버지-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도 발견할 수 있다(오윤자, 2004). 그리고 윤미애와 오윤자(2005)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기능적일수록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고, 특히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과 성공지능과의 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으나 아버지가 자녀의 지적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다. 아버지와 아동의 원만한 관계, 가정에서의 사회적 영향의 정도, 직업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 부자간의 상호교섭의 상태등은 아동의 지적발달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여아의 수학능력의 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는 것등은 이미 알려져 있다(Radin, 1981).

발달초기의 아버지 부재가 아동의 지적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다(Huston, 1983). 유아기에 아버지부재를 경험한 아이

들은 양친이 있는 아이와 비교해서, 언어영역에서는 같거나 우수한 능력을 보이지만, 수리영역에서는 뒤떨어지는 경향이 확인되고, 성취동기에 있어서도 양친이 있는 아이보다 없는 아이가 낮다는 것이 밝혀졌다(Carlsmith, 1984). 또 유아교육기관에서 남성 카운슬러를 배치했더니 아이들이 장독립적인 경향을 회복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herman & Smith, 1987). 아버지가 아닌 성인 남성과의 관계가 아동의 인지양식에 변화를 준다는 보고가 있는데, 인지양식의 발달조건에서 아버지 같은 남성의 필요를 보여주는 흥미 있는 연구이다(Witkin, 1981).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 영향을 미치는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비교연구도 있다. 예를 들면, 자연스러운 가정환경 속에서 2세부터 3세 반까지의 유아에 대해 양친 모두 거의 같은 정도의 언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양친간에 그러한 변에서 차이는 없이 지적발달에 관해 양친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결과가 얻어졌다(Hladik & Edwards, 1984).

이처럼 지적발달에 있어 아버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아동의 지적 과제의 수행능력에 대한 판단은 오히려 어머니보다는 오히려 약하다는 연구도 있다(Bird & Berman, 1985).

한편,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은 단순히 어머니관계에서 아동의 발달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어머니-자녀 3자 관계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모의 행동과 아동의 지능과의 관련을 분석한 연구에서, 남녀모두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아동의 지적 능력은 어머니의 언어적·도구적 자극, 지적자극, 긍정적인 정서 표현등과 상관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동을 놀이에 끌어들이는 활동, 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아동의 독립심에 대한 기대, 아동과의 상호작용의 기간등과 상관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Clarke-Stewart, 1980). 그러나

또 동시에, 이 연구에서 아버지가 있을 때는 어머니가 소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아버지가 단독으로 아동을 상대하는 경우는 적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아버지의 영향은 어머니의 육아행동과 서로 관계해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부산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3개교의 5, 6학년 어린이 375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375명 중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미응답한 25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을 5, 6학년으로 제한한 이유는 아버지 양육 참여에 대한 아동 인식이 중·저학년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타인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발생하는 5, 6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 학생 수는 <표 2>과 같다.

<표 2> 연구대상 학생 수

학년 \ 성별	성별		
	남	여	계
5학년	86	78	164 (46.9)
6학년	91	95	186 (53.1)
계	177 (50.6)	173 (49.4)	350 (100)

()는 %

2. 검사도구

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검사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조사하는 도구로서, 최경순(1992)에 의해 개발되고 김혜현(1992)이 타당화시킨 척도를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여가활동 11문항, 생활지도 11문항, 가사활동 4문항, 학습지도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검사의 채점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 5점, “조금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처리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가활동

아버지가 아동과 함께 나들이, 등산, 외식, 유원지, 놀이터, 영화관 등 함께 참가하여 즐기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2) 생활지도

아버지가 아동의 사회생활을 해 가는데 필요한 기본예절지도, 언행교정, 일상 생활습관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 포함된다.

(3) 가사활동

아버지가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세탁, 장보기 등에 참여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4) 학습지도

아버지가 장난감, 책, 학과목에 대해 직접 지도해 주거나 학용품, 학교준

비를 챙기기에 조력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 나타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측정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으며 전문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3> 아버지의 양육참여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Chronbach' α)
여가활동	1, 5, 7, 10, 12, 13, 20, 22, 27, 28, 30	11	.85
생활지도	2, 4, 6, 9, 14, 15, 18, 19, 21, 25, 26	11	.85
가사활동	3, 8, 17, 24	4	.83
학습지도	11, 16, 23, 29	4	.64
총계	1-30	30	.93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Chronbach' α값이 .93으로 매우 높았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64-.85의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

본 연구에서는 김아영과 박인영(2002)이 개발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김성래(2008)가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는 교육적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학업적 수행수준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자기효능감보다 구체화된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수준 선호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수는 자신감 8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0문항, 과제 수준선호 10문항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지는 5단계 Likert식 평정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사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채점하며, 부정 문항일 경우는 점수를 역으로 부여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28점~1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구성요인별 내적합치 Cronbach's α 는 자신감이 .78, 자기조절효능감이 .80, 과제난이도 선호가 .88로 나타났고 전체는 .90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지의 요인별 문항 번호와 점수의 해석 방법, 신뢰도(Cronbach's α)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전문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4>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내용	문항 수	신뢰도 (Chronabach' α)
자신감	5*, 8*, 11*, 14*, 17*, 18, 20, 23*	8	.77
자기조절 효능감	2, 3, 6, 9, 12, 15, 21, 24, 26*, 27	10	.88
과제난이도 선호	1, 4, 7, 10, 13, 16*, 19*, 22, 25, 28	10	.90
총계	1-28	28	.90

* : 역산처리한 문항

다. 성공지능 검사

본 연구에서는 Sternberg(1993)의 삼원적 지능검사지를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번안한 이상희(200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분석적지능, 창의적지능, 실제적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적 지능의 언어영역은 문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추론해내는 문제이고, 수 영역은 배열된 수의 규칙을 찾아 빈 칸에 들어갈 수를 찾아내는 문제이며, 도형 영역은 상자의 윗줄과 아랫줄에 있는 도형 사이의 관계를 보고 빠진 공간 속의 도형을 찾아내는 문제이다.

창의적 지능의 언어영역은 일상의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낼 것을 요구하고, 수 영역은 일상의 여러 문제 상황을 주고 스스로 원리를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하게 하며, 도형 영역은 효과적으로 길을 찾는 문제 외에 도형으로 넓이를 비교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적 지능의 언어 영역은 주어진 단어 간의 관계를 추리하여 새로운 단어와의 관계를 찾아야 하고, 수 영역은 수 연산의 규칙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형 영역은 여러 도형의 변형 속에서 규칙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이 검사는 하위 영역별로 각 4문항, 총 36문항이다. 검사시간은 하위요소 각 5분씩, 총 45분이다. 이 검사의 전체신뢰도 Chronbach' α 는 .80이며, 성공지능 검사의 구성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성공 지능 검사의 구성

검사영역		문항 수	문항번호	검사시간	Chronbach α
분석적 지능	언어	4	1, 2, 3, 4	5분	.72
	수	4	5, 6, 7, 8	5분	
	도형	4	9, 10, 11, 12	5분	
창의적 지능	언어	4	13, 14, 15, 16	5분	.71
	수	4	17, 18, 19, 20	5분	
	도형	4	21, 22, 23, 24	5분	
실제적 지능	언어	4	25, 26, 27, 28	5분	.63
	수	4	29, 30, 31, 32	5분	
	도형	4	33, 34, 35, 36	5분	
총 계		36		45분	.80

이상의 성공지능 검사는 분석적, 창의적, 실제적 측면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되었으며 모두 사지 선다형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수집 절차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학교의 5, 6학년 총 12학급을 대상으로 2010년 후반기에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학업부담이 적은 학년말에 실시하였으며 해당 반 담임교사들에게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공지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담임교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4.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공지능의 발달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년별×성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각 하위요인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학년별×성별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상대

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의 하위요인인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아동의 성공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의 하위요인인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성공지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단계적 투입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SPSS WIN 18.0으로 처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각 변인의 발달적 경향 분석

가. 아버지 양육참여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년별 × 성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학년별 ×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성별	n	5학년(n=164)		6학년(n=186)	
			M	SD	M	SD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전체	남	177	90.26	21.69	92.01	24.98
	여	173	97.79	24.21	95.98	24.42
여가활동	남	177	32.15	8.99	33.02	9.74
	여	173	35.40	9.80	34.19	10.52
생활지도	남	177	34.55	9.24	34.67	9.75
	여	173	36.42	9.60	36.39	8.73
가사활동	남	177	12.24	4.54	12.38	4.40
	여	173	12.85	4.60	12.86	4.36
학습지도	남	177	11.31	3.66	11.93	4.32
	여	173	13.13	4.04	12.54	4.02

<표 6>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더 높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년별×성별 이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학년별 × 성별 이원변량분석

변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전체	학년(A)	.08	1	.08	.00
	성별(B)	2880.78	1	2880.78	5.05*
	A*B	277.45	1	277.45	.49
	오차	197368.04	346	570.43	
	합계	3289457.000	350		
여가활동	학년(A)	2.473	1	2.473	.026
	성별(B)	423.842	1	423.842	4.416*
	A*B	94.016	1	94.016	.980
	오차	33206.260	346	95.972	
	합계	430115.000	350		
생활지도	학년(A)	.177	1	.177	.002
	성별(B)	281.290	1	281.290	3.237
	A*B	.539	1	.539	.006
	오차	30071.052	346	86.911	
	합계	471370.000	350		
가사활동	학년(A)	.539	1	.539	.027
	성별(B)	25.401	1	25.401	1.272*
	A*B	.331	1	.331	.017
	오차	6910.785	346	19.973	
	합계	62352.000	350		
학습지도	학년(A)	.018	1	.018	.001
	성별(B)	127.101	1	127.101	7.875**
	A*B	31.931	1	31.931	1.978
	오차	5584.467	346	16.140	
	합계	57928.000	350		

* $p<.05$, ** $p<.01$

위의 <표 7>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전체에 대한 학년 및 성별 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별 간에는 $p<.0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더 높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하위영역에 대한 학년 및 성별 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 여가활동과 가사활동에서 $p<.05$ 수준에서, 학습지도에서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더 높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더 높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가활동과 가사활동 및 학습지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다고 생각하였다.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효능감의 발달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년별 × 성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학년별 ×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성별	n	5학년(n=164)		6학년(n=186)	
			M	SD	M	SD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남	177	94.66	15.80	91.46	16.32
	여	173	96.86	16.91	94.44	13.83
자신감	남	177	29.10	4.38	28.43	4.83
	여	173	29.54	4.23	28.45	4.47
자기조절 효능감	남	177	33.74	6.99	33.41	7.01
	여	173	35.09	6.98	34.98	5.93
과제난이도 선호	남	177	31.81	7.14	29.63	8.00
	여	173	32.23	7.85	31.01	6.04

<표 8>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6학년보다 5학년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년별×성별 이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IV-4>에 제시되어

있다.

<표 9> 학년과 성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이원변량분석

변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학년(A)	686.700	1	686.700	2.789
	성별(B)	583.041	1	583.041	2.368
	A*B	13.386	1	13.386	.054
	오차	85192.717	346	246.222	
	합계	3196181.000	350		
자신감	학년(A)	67.539	1	67.539	3.343
	성별(B)	4.561	1	4.561	.226
	A*B	3.653	1	3.653	.181
	오차	6991.65	346	20.206	
	합계	298349.000	350		
자기조절효 능감	학년(A)	4.374	1	4.374	.097
	성별(B)	185.237	1	185.237	4.100*
	A*B	1.119	1	1.119	.025
	오차	15630.658	346	45.175	
	합계	427388.000	350		
과제난이도 선호	학년(A)	252.661	1	252.661	4.783*
	성별(B)	70.566	1	70.566	1.336
	A*B	20.358	1	20.358	.385
	오차	18279.156	346	52.830	
	합계	357580.000	350		

* $p<.05$, ** $p<.01$

위의 <표 9>에서와 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에 대한 학년 및 성별 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년 및 성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자기조절효능감에서 성별에 따

라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제난이도 선호에서는 학년에 따라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5학년이 6학년보다 과제난이도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제난이도 선호가 떨어지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다. 성공지능

성공지능의 발달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년별 $\times$ 성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성공지능의 학년별 $\times$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성별	n	5학년(n=164)		6학년(n=186)	
			M	SD	M	SD
성공지능 전체	남	177	29.16	4.02	30.20	3.60
	여	173	29.92	3.45	30.99	2.49
분석적 지능	남	177	11.24	1.11	11.42	.79
	여	173	11.49	.70	11.62	.64
창의적 지능	남	177	8.45	1.87	9.07	1.71
	여	173	8.63	1.87	9.22	1.57
실제적 지능	남	177	9.47	2.19	9.71	1.92
	여	173	9.81	1.82	10.15	1.52

<표 10>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학년별로는 5학년보다 6학년이 성공지능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공지능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를 알아

보기 위해 학년별 × 성별 이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 학년과 성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원변량분석

변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성공지능 전체	학년(A)	96.074	1	96.074	8.231**
	성별(B)	52.402	1	52.402	4.489*
	A*B	.021	1	.021	.002
	오차	4038.688	346	11.673	
	합계	321236.000	350		
분석적 지능	학년(A)	2.054	1	2.054	3.013
	성별(B)	4.337	1	4.337	6.362*
	A*B	.034	1	.034	.050
	오차	235.849	346	.682	
	합계	46094.000	350		
창의적 지능	학년(A)	31.606	1	31.606	10.322***
	성별(B)	2.367	1	2.367	.773*
	A*B	.008	1	.008	.003
	오차	1059.494	346	3.062	
	합계	28569.000	350		
실제적 지능	학년(A)	7.544	1	7.544	2.157
	성별(B)	13.090	1	13.090	3.743
	A*B	.178	1	.178	.051
	오차	1210.019	346	3.497	
	합계	34787.000	350		

* $p<.05$, ** $p<.01$, *** $p<.001$

위의 <표 11>에서와 같이 성공지능 전체에 대한 학년 및 성별 간의 주 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년에 따라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공지능 점체점수가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공지능의 하위영역 중 분석적 지능은 성별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여학생이 높았으며 창의적 지능은 학년에 따라 $p < .001$ 수준에서 6학년이 5학년보다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체 성공지능 및 분석적 지능과 창의적 지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창의적지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과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공지능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2>과 같다.

<표 1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공지능의 상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여가활동	1.00									
②생활지도	.76**	1.00								
③가사활동	.49**	.48**	1.00							
④학습지도	.73**	.76**	.51**	1.00						
⑤자신감	.32**	.28**	.12*	.19**	1.00					
⑥자기조절효능감	.48**	.52**	.24**	.41**	.56**	1.00				
⑦과제난이도선호	.38**	.42**	.16**	.35**	.40**	.70**	1.00			
⑧분석적 지능	.10	.13*	.03	.07	.09	.12*	.05	1.00		
⑨창의적 지능	.16**	.18**	.09	.15**	.22**	.24**	.20**	.26**	1.00	
⑩실제적지능	.17**	.22**	.04	.16**	.24**	.25**	.24**	.29**	.45**	1.00

* $p < .05$, ** $p < .01$

위의 <표 12>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의 하위요인인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과 자신감($r=.32$), 여가활동과 자기조절효능감($r=.48$), 여가활동과 과제난이도 선호($r=.38$), 생활지도와 자신감($r=.28$), 생활지도와 자기조절효능감($r=.52$), 생활지도와 과제난이도 선호($r=.42$), 가사활동과 자기조절효능감($r=.24$), 가사활동과 과제난이도선호($r=.16$), 학습지도와 자신감($r=.19$), 학습지도과 자기조절효능감($r=.41$), 학습지도와 과제난이도선호($r=.35$)에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사활동과 자신감($r=.12$)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가 높아질수록 아동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의미

한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의 하위요인인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와 성공지능의 하위요인인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실제적 지능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성공지능간에 부분적으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과 창의적 지능($r=.16$), 여가활동과 실제적 지능($r=.17$), 생활지도와 분석적 지능($r=.13$), 생활지도와 창의적 지능($r=.18$), 생활지도와 실제적 지능($r=.22$), 학습지도와 창의적 지능($r=.15$), 학습지도와 실제적 지능($r=.16$)에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지도와 분석적 지능($r=.13$)은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아질수록 아동의 성공지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가사활동은 성공지능 중 어떤 하위요인과의 정적인 상관을 보이지 않아 가사활동이 아동의 성공지능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공지능 중 분석적 지능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상관이 미약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와 성공지능의 하위요인인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실제적 지능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성공지능간에 부분적으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과 창의적 지능($r=.22$), 자신감과 실제적 지능($r=.24$), 자기조절효능감과 창의적 지능($r=.24$), 자기조절효능감과 실제적 지능($r=.25$), 과제난이도 선호와 창의적 지능($r=.20$), 과제난이도와 실제적 지능($r=.24$) 등에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조절효능감과 분석적지능($r=.12$)은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성공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성공지능 중 분석적지능과의 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의 하위요인인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모형	B	β	t	p	VIF	F	p	R	R ²
1 생활지도	.838	.497	10.678	.000	1.000	114.011	.000	.497	.247
2 생활지도	.550	.326	4.646	.000	2.338	10.322	.001	.518	.269
여가활동	.361	.226	3.213	.001	2.338				

위의 <표 13>에서와 같이 먼저, 다중공선성 검정 결과 VIF 값이 모두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하위요인인 생활지도, 여가활동이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변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26.9%를 설명하고 있으며, 두 변인 중 생활지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생활지도와 여가활동만이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4.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아동의 성공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아동의 성공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의 하위요인인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성공지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들을 고려해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아동의 성공지능에 미치는 영향

모형	B	β	t	p	VIF	F	p	R	R ²
1 생활지도	.091	.244	4.691	.000	1.000	22.005	.000	.244	.059

위의 <표 3>에서와 같이 먼저, 다중공선성 검정 결과 VIF 값이 10이하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아동의 성공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하위요인 중 생활지도가 성공지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지도의 성공지능에 대한 총 설명력은 6%이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생활지도만이 아동의 성공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자녀들이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유능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적 시사점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산시내 초등학교 3곳 아동 35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선행연구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Sternberg의 성공지능 이론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알아보았다.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 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 이원변량분석,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의 차이

가.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차이

아동의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의 차이를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자녀

의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녀의 성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녀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가 남자인 경우에 비하여 전체 자녀양육참여도를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학습지도와 여가생활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버지가 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역할이나 관심도 영역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위영희, 1978; 최경순, 1992) 연구와 남아보다는 여아의 양육에 좀 더 참여한다고 보고한 (김미영, 1985; 김옥엽, 1981; 양득주, 1988; 오미경, 1990; 어옥자, 2003) 연구와는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남아와 여아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한(국선자, 2000; 김은정, 2001) 견해와 아버지는 여아보다 남아의 사회화나 지도에 더 참여하고 관심을 쏟는다는 어옥자(1983)의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과거 전통적 가치관에 따른 양육태도로 인해 남자는 아버지가 “남성성”을 강조하므로 남아에게 더 자주 대화를 시도하고 육체적 활동을 더 격려하는 모습이 반영된 결과로 유추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구조가 핵가족화 됨으로서 과거에 비해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전통적 사상에서 벗어나 남아선호사상의 완화와 아들, 딸에 대한 성차별의식이 점차 감소된 시대적 변화로 인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나. 학년 및 성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전체에서 학년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하위영역 중 자기조절효능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의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과제난이도에서는 5학년이

6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조절효능감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으며 학교급별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정규태(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업에 대한 부담과 결과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조절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정애(2008)의 연구결과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사회적 비교를 중요하게 지각하고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낮추게 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낮게 지각한다고 한 전성연·최병연(199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다시 말하면 5학년의 경우 6학년보다 과제수행의 결과에 대해 자유롭기 때문에 과제가 어렵더라도 도전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안경미(2008)의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이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전반적으로 큰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조절효능감이 더 높게 나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없다는 정미숙(2008)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좀 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성공지능의 차이

성공지능은 전체적으로 학년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했다.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성공지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성공지능이 유의하게 높았다. 하위영역 중 분석적 지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창의적 지능은 6학년이 5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초등학생의 성공지능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이상희(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만 창의적 지능과 실제적 지능은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지만 분석적 지능은 유의하지 않다는 정지영(2005)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여아의 음악지능, 논리-수학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개인간 지능, 개인 내 지능이 남아에 비해 점수가 높다는 연구(팜 프록 마잉, 2008)과도 같은 맥락의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하게 초등학생의 다중지능 발달 특성은 연령별,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류숙희(2002), 임은혜(2002)의 연구결과를 비교해보면 성공지능 역시 다중지능과 마찬가지로 성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공지능의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그대로 일반화하여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과의 관계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아동일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성공지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자세히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아동일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하위요인별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중 여가활동과 생활지도의 참여가 높다고 생각하는 아동일수록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여가활동과 생활지도, 그리고 전체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동들의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양미숙(2005)의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로 아버지의 여가활동과 생활지도에의 아버지 참여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여가활동과 생활지도 참여가 자녀의 학업동기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정지영과 김희화(2005)의 연구,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학업적 유능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Flouri & Buchanan, 2004; 도금혜, 2008, 재인용)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높다는 연구(황순영, 정영숙, 우수경, 2005)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는 사회적 적응을 더 잘한다는 연구(Coosey & Fondell, 1996; Coley, 1998; 도금혜, 2008, 재인용)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생활지도와 여가생활의 경우 자녀와 함께하는 상호작용의 면이 부각된 하위영역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효과적인 역할수행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윤서영, 1999)에 근거해서,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자녀는 자신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성공지능과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성공지능은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하위요인 중 여가활동과 생활지도, 학습지도는 자녀의 성공지능 중 창의적 지능과 실제적 지능과 관련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가사활동은 자녀의 성공지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어떠한 하위요인도 자녀의 분석적 지능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지적 발달이 촉진된다는 Lamb(1986)의 연구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조복희(200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아버지가 여가활동 또는 생활지도, 학습지도를 함께 하여줄 때 자녀는 아버지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는 또다시 지적발달을 촉진시켜 자녀의 성공지능 중 창의적 지능과 실제적 지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사활동은 아동의 성공지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가사활동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버지가 가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자녀양육에 참여할 시간을 줄어들어 지적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가사활동이 유아 다중지능의 하위변인인 논리수학지능과 언어지능 등에 유의미한 부정상관이 있다는 임덕수(200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하위변인 중 가사활동과 다중지능 하위변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최민자(2004)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분석적 지능의 경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다양한 경험수준을 가진 과제들에서 적용되는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획득되어지는 창의적 지능과 상황 및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조성·선택하

기 위해 경험에 적용되는 정보처리 방식인 실제적 지능에는 영향을 주지만 내적 세계에서 정보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요소인 분석적 지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ternberg, 1996).

3.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양육참여도의 하위요인 중 여가생활과 생활지도가 학업적 효능감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남았으며 설명력은 약 27%였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유형이 여가활동과 생활지도에 더 집중되는 것은 아이와 잘 놀아주는 아버지가 이상적인 아버지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할 수도 있다(여성가족부, 2007). 또한 아버지가 여가활동과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타인과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이현정(2005)의 연구결과를 볼 때 아버지의 여가활동과 생활지도 참여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학습활동과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고 특히 여가활동 및 생활지도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다는 양미숙(2005)의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생활과 생활지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영역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요인 중 학습지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지나친 학습관

여가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낮게 할 수 있다는 정규태(2009)의 연구를 살펴볼 때 아버지의 학습지도가 자녀에게 학업적 중압감을 주었기 때문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4.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아동의 성공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성공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양육참여도의 하위요인 중 생활지도가 성공지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남았으며 그 설명력은 6%이다. 이는 최민자(2004)의 연구 결과인 아버지의 생활지도가 음악적 지능을 제외한 다중지능의 모든 하위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아버지의 생활지도가 아동의 지적발달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설명력이 6%로 나온 점은 아동의 지적과제의 수행능력에 대한 판단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우수하고 아동의 지적발달에 주는 아버지의 영향은 어머니보다 오히려 약하다는 연구(Bird&Berman, 1985)를 살펴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성공지능에는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다만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지적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으므로 아버지 뿐 아니라 어머니가 성공지능에 미치는 영향과 그 외 어떠한 다양한 요인들이 성공지능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지금까지 분석되고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년 및 성별에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공지능에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학습지도와 여가생활 및 학습지도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 효능감 및 전체 성공지능과 분석적 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 과제난이도는 떨어지며 성공지능의 창의적 지능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성공지능이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하위요인 중 생활지도와 여가생활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유효하게 설명하였다.

넷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자녀의 성공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하위요인 중 생활지도가 성공지능을 유효하게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버지가 여가생활과 생활지도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성공지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동의 정서발달과 인지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이 중요하며 어머니의 역할 못지않게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론 및 몇 가지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지역적으로 특정 도시에 국한되어 있으며, 최종분석 대상이 3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있어서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집과 학년의 단계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자녀가 인식한 수준에서 응답하였으므로 객관적 사실보다 주관적인 답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자녀와 아버지 모두에게 양육참여도를 묻고 그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독립변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성공지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그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파악해보았는데 그 결과 아버지의 양적인 양육참여도가 주는 영향력은 파악했으나

아버지와 자녀의 질적인 관계가 주는 영향력은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아버지의 양육태도나 상호의사소통 등 아버지가 주는 질적인 영향력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성공지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설명력이 6%로 낮았으므로 성공지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국내에서 성공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가 매우 드문 가운데 이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시켜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통해서 자녀의 정서적, 인지적 능력의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 및 그 독자적인 영향력이 큼을 파악하였다. 자녀의 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자녀양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는 아버지들이 아직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아버지는 물론, 가족 및 사회구성원들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어머니 중심으로 되어있는 교육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방송 프로그램 등에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와 함께 하는 아버지 양육참여 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부부 공동 양육을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영심 · 송영주 (2002). 성공지능과 전통지능의 고등학생 학업성취도에 대한 예측력 비교. 교육심리연구, 16(4), 83-122.
- 고동혜 (2001).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학습양식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윤미 (2006). 성공지능과 초등학생 학업성취도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선자 (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윤정 (1998).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 (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 (1985). 아버지 역할과 유아의 지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연 (2000). Sternberg의 지능 및 사고양식 이론의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래 (2008). 초등교사의 과학교수 효능감이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과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미 (2000).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성역할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2007). 자기효능감과 학업동기이론에 대한 개관. 김아영(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론과 현장연구, 15-63. 서울학지사.
- 김아영·김미진 (2004). 교사효능감 척도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8(1)
37-58.
- 김옥엽 (1981). 아버지의 역할과 자녀의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
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숙 (2004). 성공지능의 이론적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정 (2001). 유아의 정서지능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와의 관계. 성균관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 (2004).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이 미술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홍
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련 (1999). 아동치료 접근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
부.
- 김혜현 (1992).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학동기 딸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복 (2008).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학교생
활적응과의 관계분석.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 (199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버지 역할 인식과 역할수행기
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동진·김진철·전계영 (2003). 과학영재의 삼원지능·사고양식과 학업성
취와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1(4), 25-48.
- 나동진·김진철·이정규 (2005). 성공지능이론의 관점에서 본 지능과 학업

- 성취도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9(1), 79-92.
- 남정홍 (2001).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금혜 (200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의사소통 유형 및 아동의 성취동기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한국 가정과 교육 학회지, Vol.20 No.4.
- 문교부 (1983). 『부모교육』. 유아교육자료 (서울 : 생동과학연구소), pp.112-13.
- 문용린·강민수 (2004). 성공지능 검사에 대한 경험적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8(3), 103-119.
- 박도순·하대현·성태제 (2000). 신 종합지능검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서동미 (199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미향 (2006). 초등학생의 성공지능과 학교생활적응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수현 (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중호·권희경 (2004). 성공지능의 교육적 의의와 활용 가능성 탐색. 교육심리연구, 18(3), 121-138.
- 어옥자 (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득주 (198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취학 전 아동의 성격특성 고정관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미숙 (2005).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도의 관계.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07). 대한민국 아빠들, ‘프렌디(Friendly :Friend+Daddy)’ 되고

파!. www.mogef.go.kr.

- 오미경 (1990). 아버지의 양육참여역할 수행정도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희정 · 이숙 (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1), 71-90.
- 유성은 (2010). 여자중학생의 운동경험이 성공지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서영 (1999). 아동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지효 (2006). 초등학생의 성공지능과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영희 (1978). 아동양육에서 아버지 역할과 아버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권옥 (2005). 성공지능과 학습습관 및 학습동기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리경 (2010). 에니어그램 프로그램이 학습부진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2009). 초등학생의 성공지능과 자기조절력 및 학습태도와의 관계.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현 (2006). 생산직 남성의 아버지 역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133-150.
- 이순자 (200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자 (1983). 자녀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도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 · 김정옥 (2009).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성 발달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14(3), 61-89.
- 이현숙 (1990).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용 (199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숙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자 (1989). 취학전 아동의 지능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자연과학논문집, 7, 71-86.
- 임덕수 (2007).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 다중지능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기묘 (2003).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학습양식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윤식 (2002). 삼원적 교수 모델을 통한 창의적 및 실제적지능의 향상. 교육과학연구, 40(5), 133-160.
- 전효숙 (1990). 유치원 자녀를 둔 아버지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갑순 (2002).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업성취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규태 (2009).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형태와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제동 (2008). 초등학생용 성공지능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지영 · 김희화 (2010). 한국 초등학생의 학업동기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 자기결정성 이론을 근거로. 청소년학연구, Vol.17 No.11.
- 정현희·최경순 (1992). 아버지의 양육 참여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 판단 능력. 아동학회지, 13(1), 38-51.
- 정정애 (2008). 부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지영 (2005). 성공지능검사에서 능력에 대한 성차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규식 (2005). 지각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 (1999).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 교육과학사.
- 주건영 (2010). 성공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자·손은주 (1998).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가톨릭교육연구, 제 8집.
- 진현수 (2006). 초등학생의 성공지능 및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의 관계.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 (1992). 아버지의 양육 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민자 (2004). 유아의 다중지능과 양육환경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한순 (1995).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3.
- 통계청 (2008). 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www.nso.go.kr.
- 하대현 (2004). 성공지능 이론의 타당화 : 쟁점과 과제. 교육심리연구, 18(2), 99-121.

- 한승미 (2005).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경자 (1986).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양상도형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영희 (2006).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순영, 정영숙, 우수경 (200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역할만족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한국생활과학지, 14(4), 521-529.
- 황정해 (1992).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자 · 최윤희(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집, 22(1), 285-304.
- Bandura,A. (2004).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윤운성, 정정옥, 가경신 역), 서울:학지사
- Bandura,A.(1977). self-efficacy: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change. Psychologicalreview,84,191-215.
- Bandura, A., Schunk, D. H.(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3), 586-598.
- Baruch, G. K. and R. C. Baruch (1981). Competence-related behaviors of preschool girls.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03, pp. 79-103.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eds. by. L. Hoffman and L. W. Hoffma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pp. 21-23.

- Bigner, J. J. (1977). Attitudes toward fathering and father-child activ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 pp.89-106.
- Biller. H. & Blanchard (1974). father's Power. Anchor Press.
- Bird, J. E., & Berman, L. S., 1985, Differing perceptions of mothers, fathers and children concerning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Psychology, 119, 113-124.
- Carlsmith, L., 1984, Effect of early father absence on scholastic aptitude, Harvard Educational Review, 34, 3-21.
- Clark-Stewart. K. A. (1977). The father's's impact on mother and child. Presented to the social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March), pp. 466-78.
- Dunn, J. (1993). Young children's close relationship. Newbury, CA : Sage.
- Fisher. S. and Fisher (1976). What we really know about child reading (New Your: Basic books), p. 196.
- Hladik, E. D., & Edwards, H. T., 1984, A comparative anlysis of mother-father speech in the naturalistic home environment,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13, 321-332.
- Hoffman, M. L, (1971). father's absence and conscience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 400-406.
- Huston, S. C., 1983, Sex-typing. In P.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th, ed. (Vol. 4), Wiley.
- J. H. Stevens and N. Mathews (1978). Mother/Child, father's/Child Relationship(New York: NAEYC), pp. 111-12
- Lamb, M. E. (1981).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 Larossa, R. (1998). father'shood and social change. *Family Relations*, 37, p. 451-457.
- M. E. Lamb (1981). *The Role of the father's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 John Wiley & Sons), p. 23-24.
- Lamb, M. E. (1986). *The father's's Role: Applied Perspective*, 3-57. New York : Wiley.
- Radin, N.(1973). Observed father's behaviors as antecedents of intellectual functioning in young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8, 369 -376.
- Radin N & Russell G (1981) father'sinvolvement : father'sperspectives In M.E.Lamb,& A.Sage(Eds.), *father'shood and Family Policy*, Hilldale ,N.J : Erlbaum,1983.
- Schunk, D. H (1982). Effects of efforts attributional feedback on children's perceived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548-556.
- Schunk, D. H (1983). Reward contingencies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kills and self-efficacy.*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 511-518.
- Schunk, D. H (1989). Self-efficacy and cognitive learning. In Ames, C. & A, es, R(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pp.13-14). SanDiego, CA L Academic Press
- Sherman. R. C., & Smith, F., 1987, Sex differences in cue-dependency as a function of socialization environment. *perceptual Motor Skills*, 24, 599-602.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 Sternberg, R. J. (1996). *Successful intelligence : How practical and creative intelligence determine success in life*. New York: Simon & Schuster. ㅇ]

- 종인 역(1997). 성공지능. 서울: 영림 카디널.
- Sternberg, R. J. (1997). Successful intelligence. New York: Plume.
- Sternberg,R.J.,& Grigoranko,E.(2000).Teaching for successfulintelligence : To increase student learning and achievement. Skylight training and publishingInc
- Stevens, J. H., & Mathews. M.(1978). Mother/Child, father's / ChildRelationship. New York: NAEYC.
- Witkin, H. A., & Goodenought, D. R., 1981, Cognitive Styles : Essence and Origins.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Zimmerman, B. J., & Ringle, J.(1981). Effects of model persistence and state-ments of confidence on children's self-efficacy and problem solving. Journal ofEducational Psychology, 73, 485-493
- Zimmerman, B. J., Bandura, A., & Martinez-Ponz, M. (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 setting. American Educatonal Research Journal, 29(3), 663-676.

설 문 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각 문항에 맞고 틀린 답은 없으니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느낌대로 솔직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지는 순수한 연구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를 사용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며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도 비밀을 지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은 귀중한 연구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되오니 편한 마음으로 읽고 생각나는 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0. 12. 13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학과 전공 김은희 드림.

※ 설문지 작성에 앞서 다음 질문에 답해 주세요.

_____초등학교 ____학년 남(), 여()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검사지

★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보기에 따라서 평소 나의 아버지의 행동으로 생각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세요.

번 호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①	조금 그렇다 ②	보통 이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⑤
1	나의 아버지는 가끔 영화관에 함께 가신다.					
2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잘한 것과 잘못된 것을 자상하게 알려 주신다.					
3	나의 아버지께서는 설거지를 도우신다.					
4	나의 아버지께서는 여러 사람의 대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5	나의 아버지께서는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신다.					
6	나의 아버지는 내가 단체활동에 많이 참여하도록 권하신다.					
7	나의 아버지께서는 가끔 나의 놀이 상대가 되어 주신다.					
8	나의 아버지께서는 집안을 치우시고 정돈하신다.					
9	나의 아버지께서는 남성과 여성의 다른 점을 가르쳐 주신다.					
10	나의 아버지께서는 공원이나 놀이터에 가끔 함께 가 주신다.					
11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 알 때까지 몇 번이라도 다시 설명해 주신다.					
12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취미생활(등산, 운동, 낚시)을 하신다.					
13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놀고 있을 때 허물없이 끼어 들어 어린이들이 노는 방식으로 가끔 놀아 주신다.					
14	나의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거나 생각하기를 좋아하신다.					
15	나의 아버지께서는 선생님이나 이웃 어른께 인사를 잘 하도록 가르치신다.					

번 호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①	조금 그렇다 ②	보통 이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⑤
16	나의 아버지께서는 학용품이나 학교에 가져가야 할 준비물을 가끔 챙겨주신다.					
17	나의 아버지께서는 세탁을 도와신다.					
18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를 종종 설명해 주신다.					
19	나의 아버지께서는 좋은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					
20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친지를 방문하거나 외출을 자주 하신다.					
21	나의 아버지께서는 매일 학교 숙제를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22	나의 아버지께서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신다.					
23	나의 아버지께서는 숙제나 만들기를 할 때 도와주신다.					
24	나의 아버지께서는 가끔 식사 준비를 도와주신다.					
25	나의 아버지께서는 친구의 입장에서 대화의 상대가 되어 주신다.					
26	나의 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 보도록 권하신다.					
27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의 건강을 위해 함께 운동을 하신다.					
28	나의 아버지께서는 가끔 유원지나 동물원에 함께 가 주신다.					
29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를 박물관, 전시회, 도서관에 가끔 데려가 주신다.					
30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오락 게임을 해 본적이 있으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지

★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자신의 평소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서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세요.

번호	질문내용	전혀 아니다 ①	아닌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1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2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3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4	쉬운 과목보다 어려운 과목을 좋아한다.					
5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					
6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7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좋아한다.					
8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시험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9	보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호기를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공부한다.					
10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풀지 못한 과제에 도전하는 것이 즐겁다.					
11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라고 시킬까봐 불안한다.					
12	수업 시간 중에 중요한 내용을 잘 기록할 수 있다.					
13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목이 더 재미있다.					
14	토론을 할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내 의견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다.					

번호	질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①	아닌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15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 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16	만약 여러 과목 중 몇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 과목만을 선택할 것이다.					
17	수업시간에 발표를 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18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					
19	학교 공부는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					
20	선생님이 모두에게 질문을 할 때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한다.					
21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잘 안다.					
22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틀리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다.					
23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24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25	쉬운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하나를 푸는 것이 더 좋다.					
26	시험 때가 되면 우울해진다.					
27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잘 끝낼 수 있다.					
28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더 재미있다.					

Sternberg의 성공지능 검사

1번부터 36번까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괄호 안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번호를 써 넣으세요.

(분석적 지능 - 언어)

※ ‘모모’와 바꿀 수 있는 낱말을 보기에서 찾으세요. (1~2)

1. 정답: ()

장마철이었다. 며칠째 ‘모모’가 내려서 우산을 펴고 걸었다.

- ① 구름 ② 비 ③ 바다 ④ 나무

2. 정답: ()

3월 5일은 내 생일이었다. 우리 가족은 생일 파티를 하였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생일 노래를 부르기 위해 ‘모모’에 불을 붙였다.

- ① 풍선 ② 선물 ③ 아궁이 ④ 촛불

3. 다음 보기에서 ‘송송’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송송’이가 초록색이어서 나는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 ① 자동차 ② 표지판 ③ 신호등 ④ 나무

4. 다음 보기에서 ‘바수’가 의미하는 것은? ()

날은 더웠고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많은 ‘바수’들이 호수에 있었다. 어떤 것들은 수상스키 타는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었다.

- ① 물결 ② 배 ③ 뗏목 ④ 오리

(분석적 지능 - 언어)

5. 아래의 표의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가요? ()

5	10
6	12
7	

- ① 13 ② 14 ③ 15 ④ 16

6. 아래의 표에는 숫자들이 규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규칙에 따라 다음에 올 숫자를 추리해보세요.()

1	2	3	4	5	6
3	4	5	6	7	

- ① 2 ② 5 ③ 7 ④ 8

7. 다음의 숫자들은 어떠한 규칙에 의해 배열되어 있습니다. 같은 규칙으로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찾는다면? ()

10	20	30	40	
----	----	----	----	--

- ① 28 ② 35 ③ 50 ④ 55

8.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무엇입니까? ()

2	1	3	1	4	1	
---	---	---	---	---	---	--

- ① 2 ② 5 ③ 7 ④ 8

(분석적 지능 - 도형)

※ 상자 윗줄에 있는 도형의 관계를 보고 아랫줄 도형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도형을 찾아보세요. (9~10)

9. 정답 : ()

♠	♠
□	

- ① □ ② ■ ③ ■ ④ ♠

10. 정답 : ()

○	◎
■	

- ① □ ② ■ ③ ■ ④ ♠

※ 다음 그림은 일정한 규칙을 갖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규칙으로 빈칸에 들어갈 도형을 찾아보세요. (11~12)

11. 정답 : ()

≤	≥
∈	

- ① ≪ ② ≫ ③ ≡ ④ ≦

12. 정답 : ()

∫	∫∫
<	

- ① ≪ ② ≥ ③ ∧ ④ ∨

(창의적 지능 - 언어)

※ 아래의 글을 읽고, 각각의 물음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13~14)

영은이는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서 음악학원에 가길 원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음악학원보다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 태권도 학원에 다니길 원하신다. 영은이가 음악학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3. 내가 영은이라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나요? ()

- ① 자신의 음악적 지능 ② 자신의 현재 체력상태
- ③ 어머니의 생각 ④ 선생님의 생각

14. 내가 영은이라면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 ①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조르고 떼를 쓴다.
- ② 학교 선생님께 부탁하여 부모님을 설득하게 한다.
- ③ 어머니의 결정에 따라 태권도 학원에 다닌다.
- ④ 학원에 다녀서 피아노를 잘 치게 된 친구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를 설득시킨다.

※ 아래의 글을 읽고, 각각의 물음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15~16)

지석이는 인기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도, 항상 노는 것처럼 보이는 인기보다 성적이 낮다. 곧 다가올 시험에서 인기를 따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5. 만약 내가 지석이라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

- ① 교과서와 노트 ② 인기의 공부방법
- ③ 참고서에 나온 문제 ④ 학원에서 쓰는 교재

16. 내가 지석이라면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 ① 성적이 좋은 친구들과 서로 상의하면서 공부한다.
- ②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교과서와 노트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공부한다.
- ③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 함께 다닌다.
- ④ 선생님께 공부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인기와 함께 시험공부를 한다.

(창의적 지능-수)

17. 영진이는 어떤 수를 생각하여 그 수에 4를 곱한 후, 12를 더하여 2배하였더니 88이 되었습니다. 처음 영진이가 생각했던 수는 무엇입니까? ()

- ① 8 ② 9 ③ 10 ④ 11

18. 길이가 3.6m인 철사를 3도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한 도막은 가장 긴 도막보다 40cm 짧고, 다른 도막은 가장 긴 도막보다 80cm 짧습니다. 가장 긴 도막의 길이는 몇 cm 입니까? ()

- ① 130 ② 160 ③ 240 ④ 360

19. 어떤 수에 5를 더해서 2를 곱해야 할 것을 잘못 계산하여 어떤 수에 5를 더해서 2로 나누었더니 답이 5가 되었다. 어떤 수는 얼마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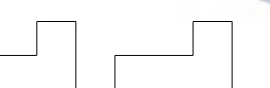
- ① 3 ② 4 ③ 5 ④ 10

20. 한 학급에서 달리기 시험을 했다. A가 10m 를 달릴 때는 B는 15m 를 달렸다. B가 60cm 를 달릴 때, A는 몇 m를 달렸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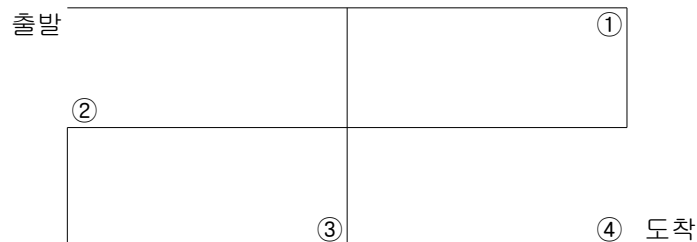
- ① 20m ② 30m ③ 40m ④ 50m

(창의적 지능 - 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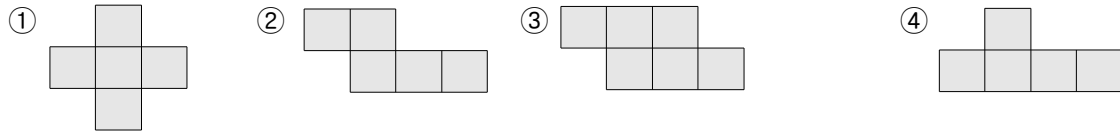
21.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을 찾으세요. ()

- ① 우리 집 —  학교
- ② 우리 집 —  학교
- ③ 우리 집 —  학교
- ④ 우리 집 —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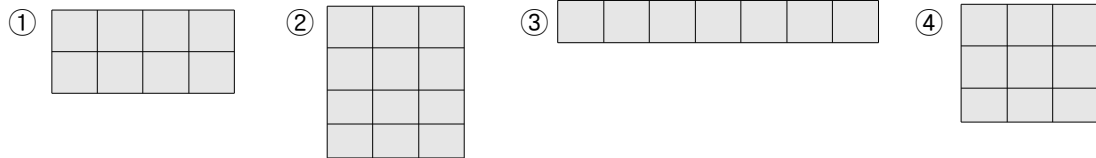
22. 민수는 출발 지점에서 시작하여 가장 빠른 길로 도착지점까지 걸어갈 것이다. 민수를 빨리 만나려면 어느 위치에서 서 있는 것이 좋을까? ()



23. 넓이가 다른 하나는 어느 것입니까? ()



24. 넓이가 가장 넓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실제적 지능 - 언어)

25. 닭은 달걀을 낳는다.

닭과 달걀의 관계는 나무와 _____의 관계와 같다. ()

- ① 사과 ② 뱀 ③ 땅 ④ 비

26. 고양이와 쥐의 관계는 새와 _____의 관계와 같다. ()

- ① 동지 ② 알 ③ 지렁이 ④ 나무

27. 눈과 살의 관계는 돈과 _____의 관계와 같다. ()

- ① 지폐 ② 갈퀴 ③ 은행 ④ 녹색

28. 물고기와 비늘의 관계는 새와 _____의 관계와 같다. ()

- ① 나무 ② 달걀 ③ 깃털 ④ 동지

(실제적 지능 - 수)

※다음 ♡, ♥는 새로운 연산기호입니다. 그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29~30)

$$\begin{aligned} A \heartsuit B &= A + B - 1 \\ A \heartsuit B &= A + B + 1 \end{aligned}$$

29. $4 \heartsuit 6$ 은 얼마입니까? ()

- ① 8 ② 9 ③ 10 ④ 11

30. $5 \heartsuit 6$ 은 얼마입니까? ()

- ① 9 ② 10 ③ 11 ④ 12

※다음은 #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학연산기호입니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1~32)

$A > B$ 이면, $A \# B = A + B$ 그렇지 않으면, $A \# B = A \times B$
--

31. $4 \# 7$ 은 얼마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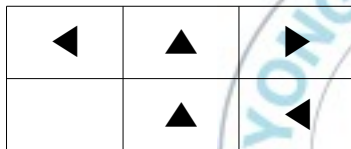
- ① 3 ② 11 ③ 28 ④ 29

32. $10 \# 7$ 은 얼마인가? ()

- ① 15 ② 17 ③ 20 ④ 70

(실제적 지능 - 도형)

33. 상자 안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도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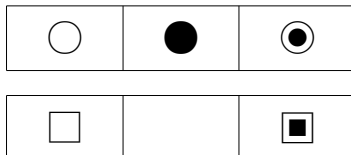
- ① ■ ② ◆ ③ ▶ ④ ◆

34. 다음 도형들은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다음에 올 도형은 어떤 모양일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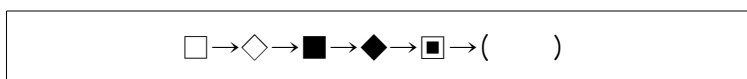
- ① ◐ ② ○ ③ ◎ ④ ●

35. 상자 안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도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 ① ■ ② ◆ ③ ▲ ④ ◆

36. 다음 도형들은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다음에 올 도형은 어떤 모양일까요? ()



- ① ≡ ② ◆ ③ ≡ ④ ≡